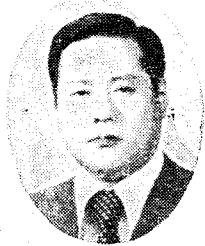


誠意와 努力으로 알찬 成長

三立食品(株)釜山



社長 金 政 云 그 회사의 자랑스런 공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 자랑스런 공지의 맨 앞자리에 두어 줄 기업이 부산 삼립식품이다. 부산 삼립식품은 어둠을 밀치는 출발 새벽 4시를 가로 지르면서 창조한 싱싱한 아침은 1969년 5월 설립 이래로 하루도 빠짐없이 이룩하여 높은 보탬의 5년이였다.

대지 6천여평에 아담하면서도 그토록 청결한 공장에서는 국내 최고의 자동기계를 움직이는 종업원 1,000여명의 힘있는 맥박의 소리로 가득하다.

년 200% 성장이라는 급 템포의 성장울을 보이면서 그 모든것은 질서와 정돈속에서 1일 생산량 130만개를 만재한 차량이 부산을 위시

한 경상남·북도의 구석구석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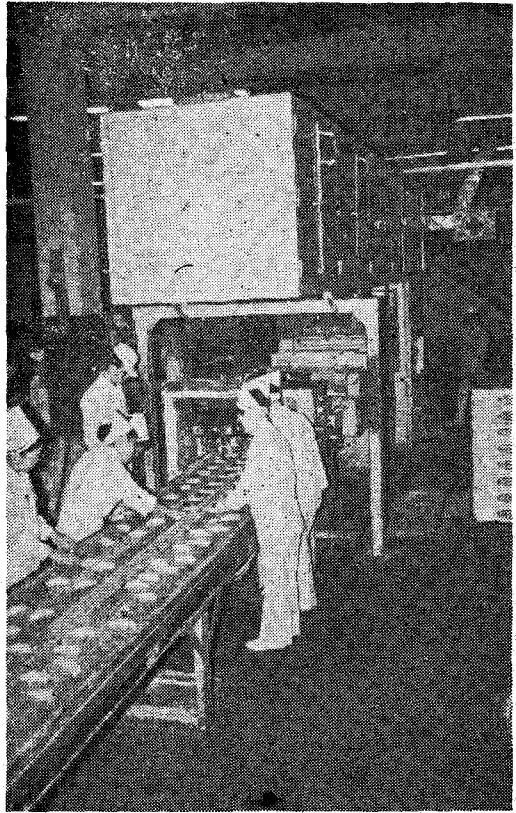
여기에는 내일을 창조하는 비전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패기에 찬 김정운 사장을 주축으로하여 김은국 전무이사 그 밑에 생산을 맡고 있는 김선두 기술상무, 영업부서를 관장하는 이관학 상무, 업무를 담당하는 김사영 상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맛있고 영양많은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오늘의 부산 삼립을 날게되었던 것이다.

젊은이다운 경영 합리화에서 조직적인 부레인스토밍을 이용하여 전체 사원 평균 연령이 24세 정도 밖에 안되는 기업으로서 현재 부산 삼립식품은 식품공업의 선두에서 힘차게 한 발자욱 한 발자욱 전진해 나가는 모습이 역력하다.

무릇 식품 공업계에서 문제점은 시장구조에 의한 유통과정의 혁신에 의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판매로의 개척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유통 계통의 혁신이라 함은 조

사진설명 : 1천여명의 힘있는
택박이 하루 130만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광경.



건없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거리 단축만을 생각하게 하는 루트 세일즈라는 것만을 생각하게 하나 이 기업에서 보는 관점은 다르다.

루트 세일즈를 위한 루트-세일즈가 아니라 판매망 구축에 의한 수요의 창조. 특히 정부 시책이 혼분식 장려책으로부터 혼식 장려책으로 바뀔에 따라 잡재 수요의 위축을 염려한 특수 판매 정책을 비롯하여 계절의 감각에 맞는 신제품 개발에 의한 시간적인 격차를 배제함이다.

이러한 점이 이 기업의 밝은 내일의 전망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74년도의 경우 비범한 경영정신으로 갑자기 바꿀수 없는 우리들의 오랜 전통적인 식생활 속에서 현대인의 식생활 개선 캠페인을 “올바른 분식의 이해”라는 스로건하에 요리 강습등 세미나를 통하여 이룩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것은 비단 이 회사 뿐만 아니라 타 메이커에서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제품에 연관되어지는 기

업정신은 영업, 생산관리의 모든것이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편에서 이끌어져야 하는가만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부산 삼립식품의 경우 훌륭한 복지시설로써 현대식 시설의 기숙사, 샤워실, 독서실, 오락실등이 있다.

이밖에 종업원들의 사우회가 조직되어 서로 돕고 아끼며 회사의 발전에 혼연 일체가 되어 움직이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경영 철학이 기업을 더욱 성장해가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 역시 믿을수 있는 기업 삼립식품에서 나오는 제품을 먼저 찾게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